

# 새만금 내 제조분야 친환경 인프라 구축

## 도-새만금개발청-군산시-농어촌공-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협약 체결

### 총 사업비 189억원 투입, 친환경 분야 성능평가·안전관리 통합지원

전북도는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농어촌공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이하 KCL),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KCL은 전국에 32개 사업장을 두고 각종 KS인증·시험평가·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KCL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천·

울산·군산(새만금) 지역에 총 632억원의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최종 선정까지는 전북도와 군산시, KCL이 신규사업 발굴과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공조 체계를 형성하고 적극 대응해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CL은 연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4,950㎡를 매입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OPEN LAB)을 구축해 화학 기반 및 EV(전기 자동차)용 소재·부품 분야 제조기업 대상 성능평가와 안전관리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으로 구축되는 개방형 실험실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기업의 직원이 장비를 예약하고, 친환경적 소재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실험 및 성능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대기 기간을 30%, 비용은 사업기간 중 70%, 사업 종료 후에도 2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그간 기업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분야 부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노후화, 고위험 시설의 개선 ▲컨설팅 등 3종의

사업장 안전관리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소기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개발사업장은 "KCL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에 더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지원 시설이 들어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만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불어 입주한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사업추진으로 도내 산업단지 제조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제품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잘 커가는 돼지, 비결은 '놀이기구'

꼬리물기 등 공격행동 73% ↓ · 몸무게 증가량 8%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경상국립대학교와 공동연구 결과 비육 돼지에 놀이기구를 제공했을 때 다툼이 적고 몸무게 증가량이 높았다고 밝혔다.



놀이기구를 제공받은 비육돼지의 다툼이 줄었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몸무게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돼지가 지닌 다양한 종류를 먹는 특성(잡식성)과 '코로 땅을 파는 성질(굴토성)을 이용해 입에 물거나 코로 밀면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 2종을 개발했다.

국내에는 돼지 스트레스 저감형 놀이기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건조, 나무조각 등 농가에서 자체 제작한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놀이기구 2종을 돈방(돼지방)에 있는 비육돼지에게 56일간 제공하고 놀이기구를 제공하지 않은 비육돼지와 몸무게 증가량, 공격행동 횟수,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비교했다.

놀이기구를 제공했을 때 비육돼지의 몸무게 증가량은 8.8% 높았으며, 귀 물기, 꼬리물기 등 공격행동은 73%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호르몬 함량은 42.8% 낮게 나타났다.

비육돼지의 도체 등급 또는 등지방 두께는 놀이기구 제공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과장은 "동물 복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연장선상에서 돼지에 대한 복지 개선이 중요한 현안과제가 됐다. 이번에 개발한 스트레스 저감형 놀이기구는 양돈농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농가 생산성 향상과 동물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비육돼지를 키우는 P모 농장주(경상남도 산청군)는 "비육돼지는 서열싸움이 잦고 공격행동이 많아 몸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데 놀이기구를 활용하면 싸움은 줄고 몸무게 증가량은 늘릴 수 있어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비육돼지의 도체 등급 또는 등지방 두께는 놀이기구 제공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과장은 "동물 복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연장선상에서 돼지에 대한 복지 개선이 중요한 현안과제가 됐다. 이번에 개발한 스트레스 저감형 놀이기구는 양돈농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농가 생산성 향상과 동물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비육돼지를 키우는 P모 농장주(경상남도 산청군)는 "비육돼지는 서열싸움이 잦고 공격행동이 많아 몸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데 놀이기구를 활용하면 싸움은 줄고 몸무게 증가량은 늘릴 수 있어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비육돼지를 키우는 P모 농장주(경상남도 산청군)는 "비육돼지는 서열싸움이 잦고 공격행동이 많아 몸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데 놀이기구를 활용하면 싸움은 줄고 몸무게 증가량은 늘릴 수 있어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비육돼지를 키우는 P모 농장주(경상남도 산청군)는 "비육돼지는 서열싸움이 잦고 공격행동이 많아 몸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데 놀이기구를 활용하면 싸움은 줄고 몸무게 증가량은 늘릴 수 있어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수소산업 성과 공유

### 미래 과제 가능

### 도, 수소에너지 전시회 참여

전북도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일, 수소산업의 현주소와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과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21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74개사 350개 전시공간(부스) 구성, ▲국제 수소에너지 포럼, 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 발표회 ▲유럽·캐나다 지역 수소 기업 및 기관과 연결하는 전자상거래(B2B) 상담회 ▲참가업체 신제품·기술 설명회 등이 마련된다.

도는 이번 전시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제로 실현을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CO2-free)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의 비전을 공유하고, 국내외 수소산업 관련 동향을 파악해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전시회 참여를 통해 2050 세계 수소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내의 수소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과 교류하고, 새만금 지역의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모색하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회에 참여하는 수소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인지도를 높이고 새만금 투자여건과 저렴한 장기 임대용지, 각종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등을 홍보해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투자 잠재기업을 발굴해 실무자 연결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무슨 맛일까?' 농촌진흥청과 지역 양조장이 시범 생산한 증류주 시제품 시음 행사가 열린 9일 전주시 전통술박물관에서 참석자들이 시음을 하고 있다. (본보 11월 9일자 6면,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전북 77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 서한국 전북은행장

#### "사람중심 따뜻한 나눔 실천할 것"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서한국 은행장이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이 됐다.

서 행장은 이번에 전북 제77호, 전국 제272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이름을 올리면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9일 전북은행 본점 9층에서 진행된 가입식에는 전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 전북은행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한국 은행장의 가입을 축하했다.

올해 3월 취임한 서한국 은행장은 이 외에도 지난 5월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 리더'로 참여하며 도내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선 것은 물론 평소에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9일 전북은행 본점 9층에서 진행된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 가입식에서 김동수 전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해 서한국 은행장의 가입을 축하했다.

특히, 이번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은기를 불어 넣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수 전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북지역을 위한 나눔에 헌

패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성공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꼭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한 대한민국 대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1억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간 1억원 기부를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북 중기청-남원시, 중기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9일, 기업 노임산업단지 화장품지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환경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남원시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 자리에서 듣고 직접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경식 부시장장을 비롯해

관내 중소기업의 대표 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자금 지원, 수출분야를 개회했다.

지원시책 설명에 이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별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책 활용의 애로를 사

전에 차단하여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수혜의 장을 만들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전경식 남원부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남원읍 터전으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하고 싶은 도시,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유레카 목장 김수영 대표, '국내 자연치즈 제조 명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축산과학원은 (사)한국목장경영유가공연구회와 함께 제14회 목장형 자연치즈 경연대회를 열고, 대상 수상자로 전남 영광 유레카 목장 김수영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 대표가 출품한 고다치즈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조직감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장형 자연치즈 경연대회는 국내산 자연치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에는 고다, 체다, 베르케, 폼페 치즈 등 자연치즈 31점이 출품됐다.

대상을 수상한 유레카 목장 김수영



대표는 "지난 17년 동안 꾸준히 숙성 치즈를 만들어온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목장 숙성치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위드 코로나 시행 긍정'

58.7% "확진자 급증 우려되나 생업 유지 위해 불가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중 소상공인 6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58.7%는 확진자 급증은 다소 우려되지만 생업 유지를 위해 위드 코로나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고, 크게 우려되지 않으며, 위드 코로나는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22.1%를 기록해, 소상공인은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해 긍정적(80.8%)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62.4%는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을 통한 매출 회복이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매출의 25% 미만, 20.2%는 25% 이상 50% 미만 일 것으로 예상했고, 구인·구직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의 21.2%에 불과했으며,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중 소상공인 대다수(92.8%)는 연말 송년회 시즌인 11,12월 손님 예약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0% 미만(25% 미만) 85.4% [25% 이상 50% 미만] 7.4%에 그쳤다고 응답했다.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될 경우 필요한 조치는 '영업시간, 사전 모임 인원 등을 부분적으로 제한'(40.1%),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복귀'(28.7%), '현 위드 코로나 방침 유지'(28.2%)의 순이었으며, 소상공인 10명 중 4명(39.3%)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 외에 별도의 조치를 함께 시행 중이거나(27.9%) 시행할 계획(11.4%)이라고 응답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1순위+2순위) 소상공인 지원책은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64.0%),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44.8%), '대출비율 연장 및 한도 상향'(38.1%)의 순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듭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만큼 위드 코로나 시행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일상생활 속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위드 코로나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경영 안정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